

## 종교적 메타포로서 음식 및 먹고 마시기: 『캔터베리 이야기』 속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이동춘

중세 사회에서 음식과 음식을 먹는 행위는 육체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생존을 가능케 하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고 있다. 오늘날처럼 당시 사람들 또한 특정 음식이 육체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차리는데 있어 형식과 규범이 강조되는가 하면 종교적으로 특정 음식의 종류와 섭취가 철저히 통제되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13, 14세기 후반 반복되는 기근으로 인하여 음식물의 부족현상은 심각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음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해볼 때, 이야기 게임의 우승자에게 공짜 술과 음식을 대접해자는 여관 주인(the Host)의 제안이 그리 가볍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성지순례라는 종교적 모티브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초서는 음식 그리고 술과 관련한 내용 및 이미지를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성지순례 출발 장소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서더크의 타바드 여관(Tabard Inn in Southwark)을 초서는 작품의 속 「총 서시」(*The General*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3900)

Prologue)에서 매우 구체적 언급하고 있다. 조나센(Frederick Jonassen)에 따르면 서터크는 당시 술과 도박, 그리고 매춘과 같은 저급한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 곳으로 유명하였다(11-2). 심지어 에드워드 3세가 통치하던 1327년에 서터크는 런던의 법과 질서가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선포되어 런던의 길드에 소속되지 못한 일부 도망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였다(Myers 11).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The Pardoner's Tale)나 「요리사의 이야기」(The Cook's Tale)에도 언급되고 있듯이, 당시 여관은 먹고, 마시고, 노름하며 성적 농담은 물론 육체적 폭력까지도 흔히 일어났던 성서에서 말하는 “악의 근원지”(temple of devils)였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초서는 순례를 이끌 인물로서 여관주인인 베일리(Harry Bailly)를 설정하고 있다. 베일리는 작품에서 매우 유머러스하며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시골사제의 표현에도 암시되어 있듯이 당시 여관주인답게 욕설 또한 잘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1170-71). 그리고 베일리가 제시한 이야기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역시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 먹고 마시는 장소를 순례의 출발점으로, 이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음식과 술을 제공하는 여관주인을 초서가 설정한 이유는 물론 『캐터베리 이야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sup>1</sup> 먹고 마시는 등의 육체적 행위가 성지순례라는 종교적 행위와 서로 대립 양상을 띠면서도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넓게는 성(聖)과 속(俗)을 이분론적 대항대립으로 보지 않는 초서의 태도를 반영하는 예이기도 하다.

비록 성지 순례자들이 음식 테이블에 앉아 함께 하는 순간이 작품에

1 초서의 이 같은 설정은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에서 자주 쓰이는 “물질적 육체원칙”(material bodily principle)과 관련이 있다(18-9). 카니발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적 혹은 이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등의 인간 “육체의 저급한 부분”(lower bodily stratum), 특히 생식기, 배꼽, 항문 등의 관련이 깊다(21). 이들 기관과 관련하여 나오는 말은 욕설과 성적 농담뿐이며 더 나아가 이것이 육체적 폭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바흐친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초서가 특정 장소와 특정 인물을 작품 시작의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가 카니발을 시작하기 위한 수순이기도 하다: 이동춘 21-47을 참고.

그러져 있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한 기본 설정과 함께 음식 종류를 비롯하여 먹고 마시는 등의 내용과 이미지가 작품 여기저기에서 언급되고 있다. 순례자들 가운데 수도승(the Monk)은 구운 백조고기를 즐기는가 하면 「소환리의 이야기」(The Summoner's Tale)에 등장하는 탁발승(the Friar)은 닭의 간을 즐기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소환리 또한 향이 강한 “마늘, 양파, 그리고 부추”(634) 등을 좋아하는 인물로 작품에 그려져 있다. 이들과는 사뭇 다른 음식 습관을 지닌 인물로 「신부의 이야기」(The Nun's Priest's Tale)에 등장하는 미망인은 변변찮은 “우유와 갈색 빵”(2844)을 즐겨 먹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미망인과 비슷한 음식 습관은 지닌 인물로서 그리셀다(Griselda)를 들 수 있는데, 그녀 역시 오직 생활에 필요한 음식만을 절제하여 먹는 채식주의자로 작품에 묘사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시골유지(the Franklin)의 공간은 사시사철 계절에 어울리는 음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골유지는 “에피큐르스의 자손”(336)이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식도락가의 모습이다(343-50).<sup>2</sup> 이밖에도 방앗간 주인(the Miller)은 순례 도중 술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음식 및 먹고 마시는 행위와 관련된 초서의 언급이 주로 성직자들의 묘사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수도승의 이야기」, 그리고 수도승이 하는 이야기를 되받고 있는 「신부의 이야기」속 미망인과 찬티클리어(Chantecler)의 묘사에서 음식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단순히 독특한 식탁 예절만이 언급되어 있는 수녀원장(the Prioress)의 경우를 제외한 수도승과 면죄부 판매자, 그리고 소환리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초서는 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에 의해 이미 설명이 되었듯이 음식에 대한 성직자들의 취향은 그들의 도덕적 수준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sup>3</sup> 특정 음식

2 시골유지의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만나’(spiritual manna)를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Miller 14-6을 비롯하여 그의 물질적 풍요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Keenan 36을 참고.

3 수도승에 어울리지 않는 음식 습관 및 태도에 관한 자료로서 Gillmeister 222-32;

에 대한 선호 외에 이들 성직자들은 술과 여성을 탐하는 육욕적 생활을 즐기는 인물로 작품에 직, 간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성직자들의 이야기는 설교적 내용과 형식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급하는 음식이나 섭취 태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간과한 채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의 의도는 음식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성직자들의 이야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어 있으며, 먹고 마시는 등의 행위가 단순히 육체적 생존의 차원을 넘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I. 음식, 먹고 마시는 행위의 종교적 의미

아담스(Carol Adams)는 『육류를 통해본 성의 정치학』(*The Sexual Politics of Meat*)이라는 책에서 역사적으로 남성의 공격성은 동물의 섭취, 그리고 여성의 소극성은 야채의 섭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34-7).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또한 아담스가 말하는 음식을 통한 젠더의 구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심지어 초서의 작품에서 여성이 육류에 비유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상인의 이야기」(*The Merchant's Tale*)에서 제뉴어리(January)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젊은 여자를 취하고자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그는 여성을 남성이 취하는(먹는) 고기 정도로 보고 있다(1416-20).<sup>4</sup> 이외에도 「총 서시」에 묘사된 수도승 모습에서 또한 여성은 육류의 섭취하는 능동적 존재가 아닌 고기로서 남성에게 먹히는 희생적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166). 여성과 동물(육류)을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 정도로 여겨왔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초서의 생각이 벗

Berndt 435-50; Mann 153-56을 참고. 소환리의 독특한 음식 선호도에 관한 것으로 Kaske 481-84; Biggins 48; Wood 240-44; 이밖에도 최근 논문으로 Biebel 15-26을 참고.

4 『캔터베리 이야기』와 관련한 원문 인용은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ed, Larry D. Benson et al (Boston: Houghton Mifflin, 1987)에서 이루어짐.

어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반면 초서 작품 어디에서도 고기를 섭취하거나 폭식, 폭음을 취하는 여성 등장인물은 찾아 볼 수 없다. 음식 혹은 먹는 행위와 관련하여 초서가 묘사하고 있는 여성 등장인물들은 대체로 인내하고, 절제하는 성품의 소유자들로서 이들이 취하는 음식 또한 생활에 필요한 소량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그리셀다와 「신부의 이야기의 프롤로그」에 언급되어 있는 미망인을 들 수 있다. 그리셀다가 육체적 활동을 위해 먹는 음식들은 모두가 야채들로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녀의 성품을 대변해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부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미망인의 음식 습관 또한 소박한 삶 속에서 인내를 실천하는 그녀의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음식의 종류와 먹는 양, 그리고 음식 습관이 단순히 육체적인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망인의 신중하고 지혜로운 삶을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게다가 미망인의 섭생은 생존을 위한 것인 동시에 병을 막아주는 치유제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 그녀는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톱 쏘는 음식을 조금도 필요치 않았답니다.  
 그녀의 목구멍으로 고운 음식이 넘어간 적이 없으며  
 그녀의 음식 습관은 그녀가 사는 오두막집과 어울리는 것이었죠.  
 과식으로 아픈 적이 없었으며,  
 절제된 음식 습관이 그녀의 모든 치료약이었죠...

... she eet ful many a sklendre meel.  
 Of poynaunt sauce hir neded never a deel.  
 No deyntee morsel passed thurgh hir throte;  
 Hir diete was accordant to hir cote.  
 Repleccioun ne made hire nevere sik;  
 Attempree diet was al hir phisik... (2833-38)

특이하게도 미망인을 묘사하는 26행 가운데 화자인 신부는 유독 그녀의 섭생 태도를 묘사하는데 있어 거의 10행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신부가 하려는 이야기의 중심인 챌티클리어의 음식 섭취와 배설을 말하기에 앞

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이상적 섭생 방법과 태도를 독자들에게 주지시키려는 신부의 의도로 여겨진다. 이는 단순히 신부의 견해라기보다는 시인 초서의 생각이 미망인의 묘사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시 기록들에서 알 수 있듯이, 초서는 인간의 이상적 섭생이 단순히 육체적 생존 기능을 넘어 종교적인 측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셀다와 미망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sup>5</sup>

뒤에서 논하게 될 수도승이나 면죄부 판매자와 같은 성직자들의 이야기에서는 물론 종교적 내용 및 교훈을 담고 있는 「서생의 이야기」(The Clerk's Tale)나 「신부의 이야기」에서 음식 및 먹고 마시는 행위나 이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유독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종교적 의미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시골 사제의 이야기」(The Parson's Tale)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서는 「폭식과 폭음」(gluttony)으로 인하여 인간이 범하게 되는 죄가 중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폭식과 폭음」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악들로 인간을 이끈다는 사실이다(836).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겠지만 중세 사람들에게 “폭식과 폭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죄들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 아울러 이를 범하지 않기 위한 이상적 섭생 방법과 태도를 당시 기록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신부가 말하고 있는 미망인의 섭생 태도 역시 그러한 예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신부의 이야기」의 끝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알곡”(fruit)과 “왕겨”(chaff)의 이미지의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으나 플라톤의 저서 『티마이오스』(Timaeus) 중세 번역판에 이와 똑 같은 비유가 사용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여기에 이상적인 섭생과 배설이 인간의 체액(humors)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섭생으로 인한 체액의 균형은 인간에게 올바른 도덕적, 종교적 태도를 부여한다고 플라톤의 책은 보여주고 있다.

5 대표적으로 Arano와 Henisch의 중세 사회와 음식 관련한 저서들을 참조.

플라톤이 보는 인간의 육체는 음식물의 유입, 호흡, 그리고 배설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흐름과 변화”(flux and mutability) 속에 있다. 인간의 육체 안에서 음식으로 인한 ‘흐름과 변화’는 인간의 감정, 즉 기쁨과 고통, 심지어는 인간의 악과 덕까지도 조절한다고 플라톤은 보았다(216-17). 이상적인 음식의 섭취와 배설로 이어지는 조화로운 생리적 기능은 육체적 생존을 넘어 도덕적, 정신적 안정과 질서를 가져다준다고 플라톤은 보고 있다. 특히 섭취 못지않게 배설 행위 또한 알곡을 취하고 왕겨(찌꺼기)를 걸러내는 일로서 육체의 안정은 물론 정신적 조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플라톤은 보고 있다. 음식물의 이상적인 섭취와 배설이 육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플라톤의 주장은 의학 관련한 중세 시대 기록들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Gallacher 54). 일례로 “푸이로와의 휴”(Hugh of Folieto)는 플라톤이 주장하는 음식과 배설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종교적 믿음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 섭생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켜 주며 정신적 건강은 좋은 충고, 즉 영적인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인간의 영혼에 음식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24). 이상적 음식의 섭취와 절제가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종교적 믿음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휴의 생각이 초서의 묘사하고 있는 미망인과 그리셀다의 모습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인다.

휴의 견해는 14세기 베르슈어(Pierre Bersuire)에 의해 보다 더 구체적이며 확대되어 설명되고 있다.<sup>6</sup> 음식 섭취를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이상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그는 좋은 음식을 이상적으로 섭생하는 것이야말로 천상에서 내려오는 이른바 “축복의 비전”(Beatific Vision)인 신의 세계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소 지나친 유추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는 인간의 먹고 마시는 행동이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위한 방편을 넘어 신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방법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배설과 같은 육체적 행위를 고해성사와 같은 성스러운

6 이상적 섭생과 배설에 관한 Pierre Bersuire의 보다 구체적 설명에 위해 Gallacher의 논문(56-9)을 참고.

행위로까지 그는 비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고백을 통해서 내면에 쌓인 죄가 씻어지듯이, 배설을 통하여 음식으로 인한 감정과 체액이 균형과 조화를 찾을 수 있다고 그는 보았다. 그의 주장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나친 음식 섭취, 즉 폭식과 폭음은 지나친 소변, 배설을 요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종교적 죄(gluttony)를 범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동시에 이로 인한 자기 고백의 필요성이 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당시 기록을 감안해볼 때, 초서가 유독 종교와 관련한 화자의 이야기나 종교적 교훈이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음식이나 먹고 마시는 행위 등을 통하여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이해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셀다의 경우도 그렇지만 미망인의 소박한 섭생 태도와 방법은 육체적 안정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적 세계가 종교적 믿음과 매우 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당시 기록들을 토대로 초서가 음식과 관련하여 이들 등장인물들을 묘사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아울러 초서가 앞서 언급한 당시 의학적 기록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 또한 없다. 그러나 초서의 과학 및 의학에 대한 지식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상인의 이야기」에서 메이(May)가 제뉴어리에게 배를 먹고 싶다는 변명만큼 자신의 후손을 애타게 기다리는 제뉴어리를 속이기에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임신부와 배와의 상관관계가 이미 당시 의학적 기록에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초서가 작품에 인용하고 있는 의학적 내용들이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지식수준을 능가하는 것만은 확실하다(Everest 161-73). 또한 “배고프고 목마름이 많은 기쁨”(the plentee of joye by hunger and thirst—1080)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시골사제의 약속에서 알 수 있듯이 초서는 음식, 먹과 마시는 행위가 종교적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 II. 수도승: 교회의 괴물

음식과 종교와의 상관관계에 비추어 볼 때 초서의 순례자들 가운데 수도



승만큼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음식 선호 및 섭취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하느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총 서시」에서 화려하고 보기 좋은 그의 외모와 태도, 행동에 대한 화자의 칭송에도 불구하고 수도승은 베네딕트 소속의 수도회들을 순방하는 수사(*gyrovagus*)로서 가우어가 비난하는 전형적인 “교회의 괴물”에 해당한다.<sup>7</sup> 수도원을 벗어나 그가 즐기는 취미 외에도 수도승이 “교회의 괴물”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는 실제 그가 즐기는 음식과 음식을 섭취하는 태도, 즉 폭식에서 기인한다. 「총 서시」에서 그의 외모와 즐겨먹는 음식을 통하여 성직자로서 수도승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초서는 암시적으로 보여 준다:

그의 머리는 벗겨져 마치 기름칠한 듯 유리처럼 번쩍거렸고,  
 그의 얼굴 또한 그러한 모습이었다.  
 살찌고 멋진 귀족풍의 인물이었으며,  
 빛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눈동자들은 그의 머리 위에서 춤을 추었고,  
 .....  
 고통 받는 영혼처럼 창백한 모습은 아니었다.  
 구운 살찐 백조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His heed was balled, that shoon as any glas,  
 And eek his face, as he hadde been enoynt.  
 He was a lord ful fat and in good poynt;  
 His eyen stepe, and rolynye in his heed,  
 .....

He was nat pale as a forpyned goost.  
 A fat swan loved he best of any roost. (198-206)

마르고 창백한 뺨을 지닌 고행의 수도승 모습이기보다는 초서의 수도승

7 가우어는 수도원을 벗어난 수사를 이른바 ‘기형’(freak of nature)이라고 *Vox Clamantis* 4(1. 5)에서 말하고 있다(Miller 224). 이외에도 수도승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대표적 논문으로 White 13-30; Engelhardt 287-315를 참조.

은 홍조를 띤 얼굴에 매우 풍성한 외모를 지닌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만 (Jill Mann)이 지적하고 있듯이 수도승의 외모는 바로 그가 음식을 섭취하는 태도, 즉 그가 즐기는 폭식과 폭음을 암시하고 있다(18-20).<sup>8</sup> 수도승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초서는 “구운 백조고기”를 지적하고 있다. 수도승이 소속된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수도승들이 육류를 섭취하는 것은 물론 금지되어 있다(Gillmeister 224-25). 그러나 단순히 수도회의 규율을 어기는 수도승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특정 음식을 초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승이 즐겨먹는 음식의 가격은 당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고급 음식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아, 수도승이 선호하는 음식이 수도원의 성직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Bressie 488).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백조는 전통적으로 인간이 범하기 쉬운 자만 (pride)은 물론 게으름(sloth)의 죄와 깊은 연관이 있다(Rowland 171). 수도승이 좋아하는 백조 고기를 통하여 초서는 인간이 범하기 쉬운 일곱 가지 죄 가운데 이미 수도승이 두 개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에 고급 음식에 대한 수도승의 선호와 풍만한 외모를 감안해볼 때,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는 폭음과 폭식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음식을 취하는 태도는 여관주인의 농담 섞인 말에도 암시되어 있듯이 궁극적으로는 탐욕(avarice)과 색욕(lechery)으로 연결되고 있다(1945-48). 수도승이 좋아하는 음식과 음식을 섭취하는 태도를 암시해주는 그의 외모를 통해서 초서는 수도승이 하느님이 금하는 거의 모든 죄를 범하고 있는 “교회의 괴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음식과 섭취 태도를 통하여 수도승의 도덕적, 종교적 상태를 부각시키려는 초서의 의도는 수도원에서 수도승이 하는 일을 언급하는데서 또한 나타난다. 여관주인은 수도승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몇 가지 가능성만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1929-30). 그가 제시하고

8 만(Mann)외에도 총 서시에 묘사되어 있는 수도승의 외모가 당시 성직자들의 행태를 비꼬는 풍자문학의 전통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다음 비평가들 또한 언급하고 있다: Grennen 569-74; Gillmeister 222-32.

있는 이름들의 앞에 *daun*(lord)이라는 호칭을 꼭 붙이고 있는데, 이는 수도승의 직책과 직업이 상당한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다음, 여관주인은 보다 구체적으로 수도원에서 그의 직업이 “꽤 중요한 섹스톤 [sexton] 이거나 셀러러[cellarer]”(1935-36)일 것이라고 추측한 뒤, 여관주인은 그에게 극존칭(“maister,” “governour”)을 써가며 예우해준다. 여관주인이 언급하고 있는 섹스톤과 셀러러는 오늘날 독자들에게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초서가 살던 시대 이는 수도원장 다음 가는 2인자의 역할에 해당하는 수도원의 중요한 직함이었다. 이들은 수도원에서 필요로 하는 음식과 술을 관리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으며, 더 나가 이들의 역할은 수도원에서의 어머니 역할에 비유될 수 있다(Norsworthy 314-20). 베네딕트 수도회의 규율에 따르면 이상적 셀러러란 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무절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서의 수도승은 이러한 규율을 모두 어기고 있는 셈이다(McCann 80-1). 특히 베네딕트 수도회 규율 가운데 셀러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초서의 수도승처럼 “폭음자 혹은 폭식자”(multum edax—a great eater)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규율이 당시 셀러러에게 요구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역할이 수도원에 소속된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이 지적한대로 초서가 당시 유행했던 성직자를 풍자내지 비난했던 문학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풍자 문학과는 달리 수도승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기 위해 초서는 음식 및 먹고 마시는 행위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서는 「총 서시」에서는 물론 수도승이 하는 이야기와 이야기를 연결 짓는 고리부분에서 수도승의 구체적 직업을 암시함으로써 그가 음식을 취하는 태도와 더불어 그가 범하게 되는 죄악들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음식과 먹는 행위 등과 관련된 이미지나 내용이 단순히 수도승의 묘사에만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자만으로 인하여 운명의 수레바퀴의 윗부분에 있던 권력자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도승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자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및 섭취 태도, 즉 폭음과 폭식과 보다 더 깊은 연관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수도승이 언급하는 대부분의 권력자들의 비극적 종말이 실제로 음식, 그리고 폭음과 폭식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음식 및 먹고 마시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권력자의 종말을 다루고 있는 수도승의 대표적 이야기로서 네부카드네자르(Nebuchadnezzar)와 벨샤자르(Belshazzar)의 이야기, 그리고 우골리노 백작(Count Ugolino)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두 이야기는 「수도승의 이야기」의 시작부분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거의 끝부분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수도승이 말하는 네부카드네자르와 벨샤자르의 이야기는 각각 하나의 이야기로 보기 보다는 연속적인 하나의 이야기로써 고대 영어로 쓰인 『다니엘』(Daniel)과 중세 영어로 쓰인 『정결』(Cleanness)을 바탕으로 초서가 쓴 것으로 여겨진다. 두 작품에 비하여 「수도승의 이야기」는 다소 간결하게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초점 또한 하느님을 모독하는 먹고 마시는 행위에 맞춰져 있다. 「수도승의 이야기」에서 예루살렘 신전에서 사용되던 신성한 하느님의 그릇들이 네부카드네자르에게 강탈당한 후, 그의 아들 벨샤자르의 향연에서 더럽혀지고 있는 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도승은 벨샤자르의 식탁에 오르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음식에 대하여 한번은 화자로서, 또 다른 한번은 예언자 다니엘로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승은 하느님의 그릇들이 벨샤자르 자신을 포함한 그의 부인과 신하 그리고 그의 첩들에 의해 사용되며 “먹고 싶은 만큼 지나칠 정도로” 다양한 술(sondry wines)과 음식을 이들이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2199-201). 수도승은 다시 한 번 벨샤자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성스러운 그릇이 먹고 마시는 만찬의 도구로 쓰이는 점과 벨샤자르를 비롯한 그의 주변사람들의 “대담한”(boldely) 행위가 바로 죄(synfully)와 깊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성스러운 그릇과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를 몇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도승은 두 권력자의 비극적 종말이 자만에서 비롯된 것이며, 불행이 닥치면 세상의 부는 물론 친구조차도 적으로 변한다는 상투적인 결론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다(2241-45).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이며 불순한 먹고 마시는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도승은 이야기의 교훈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수도승의 이러한 모습

은 벽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벨사자르의 모습을 그대로 닮고 있다. 제타(Jane Zatta)의 지적대로 수도승 자신 또한 벨사자르처럼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hermeneutic insufficiency)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123). 이밖에도 수도승과 그가 하는 이야기 속 비극적 주인공인 벨사자르 사이에 또 다른 유사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벨사자르를 비롯한 바빌론 궁전 사람들의 무절제한 폭음과 폭식으로 인한 죄와 수도승이 범하고 있는 죄가 같다는 점이다. 게다가 수도원에서 수도승의 직책을 감안할 때, 네브카드네자르가 강탈한 하느님 성전의 그릇을 벨사자르가 세속적인 만족, 즉 먹고 마시는 일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은연 중에 수도승의 행동을 암시한다. 수도원의 세간은 물론이거니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수도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벨사자르의 비극적 운명을 통하여 입에서 비롯되는 쾌락에 빠져있는 수도승의 운명을 초서는 독자들에게 우회적으로 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수도승은 자신과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하느님께 죄를 범하고 죽음에 이르는 인물의 이야기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입으로 하고 있는 꼴이다.

음식 및 먹과 마시는 행위와 관련한 또 다른 이야기로서 수도승은 우골리노의 백작에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먼저 우골리노의 이야기는 단테의 『지옥』(*Inferno*) 편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수도승은 다른 이야기들에 비하여 이를 다소 길게 늘려 이야기하고 있다. 다소 지루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만큼 이야기가 화자인 수도승의 상상력을 자극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골리오와 그의 아들의 운명을 말하기도 전에 수도승은 이야기의 시작부분에서부터 이들의 운명이 마치 자신의 것이라도 되는 양 동정심을 보내기도 한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우골리노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감안할 때, 순서에 있어 이 이야기가 수도승이 말하는 여타 다른 이야기들보다 앞서야하나 『켄터베리 이야기』의 대표적 두 사본인 행위트(Hengwrt)와 엘스미어(Ellesmere)에서 이것이 「수도승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순서를 여기면서까지 초서가 이 작품을 「수도승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배치한 것에는 나름의 의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골리노 백작의 이야기는 무절제한 폭음과 폭식으로 인하여 운명적 종말을 맞는 네브카드네자르와 벨샤자르 이야기와는 사뭇 다르다. 우골리노 백작의 이야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굶주림으로 인하여 비극적 종말을 맞는 백작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다. 이야기에서 굶주림에 못 이겨 죽음을 맞이하는 백작과 아이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감옥의 간수(jailer)이다. 재미있게도 수도승의 직책이 바로 “kepere of the celle”인데 중세 영어에서 celle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만 “감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kepere란 “보호자” 혹은 “간수”의 뜻을 지니고 있어, 두 단어의 의미를 결합시키면 공교롭게도 우골리노 백작의 이야기에 나오는 “간수”가 바로 수도승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총 서시」나 「수도승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 여관주인이 수도승을 두고 하는 말을 고려해볼 때, 개인적 욕구충족으로 인해 수도원에서 수도승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믿는 독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도원에는 물론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해 줄 의무를 망각한 수도승의 모습도 바로 우골리노 백작에 나오는 “간수”가 아닌가 싶다. 우골리노 백작과 아이들의 운명은 바로 수도승으로부터 육체적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 종교적 믿음마저도 구할 수 없는 공동체의 운명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런 점에서 네브카드네자르와 벨샤자르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골리노 백작 이야기에서 또한 수도승은 자신이 범하고 있는 죄악들과 이로 인한 비극적 운명을 스스로 발설하고 있는 셈이다.

음식과 섭취 방법으로 인하여 수도승이 범하게 되는 죄악들,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극을 설명하기 위해 초서가 의도적으로 바빌론의 두 권력자의 이야기와 우골리노의 이야기를 「수도승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각각 배치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두 이야기의 배경과는 사뭇 다르게 마지막 이야기의 배경을 지옥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도승이 보여주는 타락한 삶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간접적으로 초서는 보여준다. 이들 작품들을 제외한 다른 이야기들에서도 수도승은 음식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비롯되는 재앙 및 비극적 운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아

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야기를 짚막하게 이야기하면서 수도승은 이브나 선악과에 대하여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레고리 성인(St. Gregory)을 비롯한 중세 신학자들 대부분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자만이 아니라 폭음과 폭식 때문이라고 보았다. 카펠라너스(Andreas Capellanus)는 『궁정풍 사랑의 기술』(*The Art of Courtly Love*)에서 선악과에 대한 이브의 폭식이 불행의 씨앗이며, 여성은 먹는 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위의 노예”(a slave to her belly)라고까지 말하고 있다(203-4). 여성을 폭음과 폭식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카펠라너스의 태도는 중세 시대 여성 혐오주의자들의 견해와 일맥상통하고 있기는 하나, 카시안(John Cassian), 그레고리를 비롯한 중세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자만이 아닌 폭식과 폭음을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죄로 보았다.<sup>9</sup> 앞서 인용한 시골사제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폭음과 폭식이 중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유발시키는 또 다른 죄들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담과 이브 이야기 외에도 삼손(Samson)의 이야기에 삼손이 비극적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만찬에서 그의 폭음 때문이며, 알렉산더 역시 만찬에서 독을 든 음식을 먹음으로써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된다(2660). 무절제한 폭음과 폭식에서 비롯되는 비극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홀로페네스(Holofernes) 또한 유디스(Judith)의 칼에 의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하느님의 적이기에 앞서 그의 폭음과 폭식 때문이다(2568-72).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제노비아(Zenobia)의 사냥솜씨나 네로(Nero)의 화려한 복장은 입에서 비롯되는 쾌락과 더불어 사냥과 옷에 신경을 쓰는 “교회의 괴물”인 수도승의 행태를 빗대어 보여준다.

수도승이 범하는 가장 크면서도 첫 번째에 해당하는 죄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이라도 하듯 「수도승의 이야기」의 뒤를 이어 신부는 교묘하게 수도승의 어리석음을 담들의 이야

9 폭음과 폭식의 죄에 대한 카시안과 그레고리를 비롯한 중세 신학자들의 견해에 구체적 설명을 위해 Yeager 42-3을 참고.

기를 통하여 보여준다.<sup>10</sup> 신부는 시작부터 검소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미망인의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두 마리 닭이 벌이는 논쟁의 핵심 또한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미망인이 좋아하는 음식과 섭생 방법은 음식에 관련하여 수도승에게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특히 찬티클리어의 폭식과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행, 그리고 퍼텔롯의 설사약(laxative) 처방 등은 수도승의 실체를 우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11</sup>

### III. 면죄부 판매자: “폭음과 폭식”의 설교자

먹고 마시는 것에서 비롯되는 죄의 중함과 성직자들의 타락을 풍자하기 위한 초서의 의도는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면죄부 판매자가 특별히 선호하는 음식이나 육체적 비만, 그리고 섹욕 등이 그에 대한 묘사에서 수도승처럼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오히려 여성과 함께하기 어려운 존재로 묘사되어 있을뿐더러(691), 그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외모 또한 주위사람들의 호감을 살 정도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도승의 이야기」와 「신부의 이야기」에 암시되어 있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한 죽음의 패턴을 면죄부 판매자는 자신의 프롤로그와 이야기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니콜스(Robert Nichols)가 지적하고 있듯이 면죄부 판매자의 시작부분과 프롤로그, 그리고 이야기에서 각각 마시는 것과 먹는 것, 즉 에일 맥주(ale)와 빵(cake)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498). 면죄부 판매자가 이야기에 앞서 「의사의 이야기」에 흥분한 여관주인은 자신의 심장이

10 「신부의 이야기」가 「수도승의 이야기」를 반박내지 풍자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논하고 있는 대표적 논문으로 Watson 277-88; Delasant 117-32를 참고.

11 일부 비평가들이 지적했듯이 찬티클리어와 수도승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Hemingway 479-83; Lumiansky 116을 참고.



받은 충격을 치유할 수 있는 즐거운 이야기가 주는 효과와 에일 맥주 한 잔의 효과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315-16). 음식을 통하여 자신이 기대하는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말 한 뒤, 여관주인은 면죄부 판매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한다. 여관주인의 요구에 면죄부 판매자는 론이안 성인(St. Ronyan)의 이름을 언급해가며 그의 요구에 응한다(320). 론이안 성인은 생존에 필요한 극히 적은 음식만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생전에 먹고 마시는 것을 철저히 절제했다고 전해지는 브레튼(Breton)의 니니안 성인(St. Ninian)을 가리킨다고 슬레드(James Sledd)는 말한다(226-33). 음식에 빗대어 이야기를 권유한 여관주인에게 맞장구치기 위해 음식 관련한 일화로 잘 알려져 있는 론이안 성인을 면죄부 판매자가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론이안 성인을 두고 맹세한 화자답지 않게 면죄부 판매자는 이야기에 앞서 술과 빵을 먹는다(322). 성인의 절제된 식습관과 태도를 면죄부 판매자의 행동과 시작부터 접목시킴으로서 초서는 겉과 속이 서로 다른 면죄부 판매자의 실체를 독자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이야기가 “탐욕”(Cupiditas)에 관한 것이라고 화자 자신은 말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성인의 삶과는 전혀 반대로 “폭음과 폭식”으로 인하여 죄를 범한 사람들의 관한 것임을 암시해주기 위한 초서의 의도처럼 보인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음식 및 먹고 마시는 행동에 이어 프롤로그의 시작부분에서 면죄부 판매자는 독특한 설교기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고기에 양념을 쳐 먹음직스럽게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요리사에 비유하고 있다(344-48). 미사여구에 고상한 라틴어를 섞어가며 회중들의 관심을 이끈 뒤, “유리로 만든 긴 상자”(longe cristal stones)에 들어있는 유물을 음식처럼 이들에게 내놓는다고 면죄부 판매자는 고백한다. 중세 시대 성직자의 말(교훈)은 생명의 양식으로 많이 비유되기도 하였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면죄부 판매자가 자신을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주는 요리사로 비유하는 것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가 제공하는 양식은 영양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써 오직 돈을 벌고(424, 448), 먹고 마시기(452)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주위 배고픈 아이나 미망인을 전혀 개의치 않는 면죄부 판매자의 모습은 수도승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그가 제공하는 음식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나 그 안에는 그가 뱉은 독이

들어있기도 하다(421). 한마디로 면죄부 판매자가 제공하는 음식은 스티븐 스(Martin Stevens)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영양분 없는 “찌꺼이며, 배설물이며 독”에 불과한 셈이다(154).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한 이미지를 통하여 자신의 실체를 독자들에게 고백한 면죄부 판매자는 폭음과 폭식이 주는 폐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자신의 설교 내용이 세 명의 난봉꾼들이 범하는 폭음과 폭식의 죄, 그리고 이로 인하여 기인하는 다른 죄들에 관한 것임을 간단히 언급한 뒤, 면죄부 판매자는 거의 100행에 걸쳐 예거(Robert Yeager)의 말대로 폭음과 폭식으로 비극적 종말을 맞은 사람들을 장황하게 열거한다(42). 면죄부 판매자는 폭음과 폭식이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만든 요인이며(505-6), 인간의 육체를 성스러운 사원에서 화장실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정신적인 죽음은 물론 “지혜와 분별의 죽음”(558-9)으로 이끈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예시들 또한 폭음과 폭식에서 비롯되는 불경스러운 욕설, 거짓말, 거짓 맹세 등으로 모두 입으로 지은 죄(sins of the mouth)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폭음과 폭식으로 인하여 비극적 운명을 맞는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화자는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의 역할과 이를 소화, 흡수하는 위(胃)의 역할을 동일 선상에 두고 있다. 마치 요리사가 손님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음식을 “부수고, 거르고, 갈아내는” 것처럼 음식이 입을 통하여 위로 내려가 흡수되는 과정을 화자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538-40). 음식이 준비되는 과정, 소화, 흡수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육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화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그러한 기쁨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러한 악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술은 음탕한 짓을 유발시키며,  
 취기는 싸움과 나쁜 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 술 취한 사람, 당신의 일그러진 얼굴!  
 당신이 숨을 쉴 때 신내가 나고, 껌안기에 더러운 당신!

... he that haunteth swiche delices  
 Is deed, whil that he liveth in tho vices.  
 A lecherous thing is win, and dronkenesse  
 Is ful of striving and of wrecchednesse.  
 O dronke man, disfigured is thy face,  
 Sour is thy breeth, foul artow to embrace! (547-552)

위에서 폭음과 폭식으로 일그러진 사람의 모습이 바로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에서 세 명의 난봉꾼들로 예시된다.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처럼 난봉꾼들의 우화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은 이들이 서로 나누는 만찬이다(885-88). 빵과 술이 생명과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가톨릭의 성찬식을 이들의 행동은 패러디하고 있다. 이들이 서로 나누는 빵과 포도주는 삶과 구원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죽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꼴이다. 뿐만 아니라, 빵과 술을 성찬식의 전례와 연관시킴으로써 화자는 음식이 육체에 주는 부정적 측면을 정신적, 종교적 차원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아 이러니하게도 음식이 “동료들”(felawe)에게 생존에 필요한 육체적 영양분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가져다주고 있음을 우화는 보여준다. 이는 자연스럽게 개인적 탐욕과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하여 ‘말씀의 양식’을 만들어 회중에게 제공하는 면죄부 판매자가 때론 양식에 독을 넣는 행동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양념을 쳐서 아름다운 식기에 회중들에게 제공하는 화자의 ‘말씀의 양식’ 또한 난봉꾼들의 음식처럼 독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회중들에게 정신적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과는 거리가 멀다. 난봉꾼들의 빵과 술처럼 화자의 ‘말씀의 양식’이 회중들에게 소화, 흡수되었을 때 이것이 어떠한 결과가 낳게 되는가는 여관주인의 반응에 잘 드러나 있다:

“네 놈의 오래된 그 바지에 키스를 하라고,  
 그것이 성인의 유물이라고 거짓말을 해가며,  
 네 놈 엉덩이에 더러움이 묻어 있는 그것을 말이다!”

.....  
 “성궤에 있는 유물보다는  
 네 놈의 고환을 내 손으로 잡고 싶구나.

그것을 잘라내어, 네 놈이 들고 다니도록 만들 것이고,  
 그것을 돼지 똥 속에 모셔지게 만들 거야!”

“Thou woldest make me kisse olde breech,  
 And swere it were a relyk of a seint,  
 Though it were with thy fundement depeint!”

.....  
 “I wolde I hadde thy coillons in myn hond  
 In stide of relikes or of seintuarie.  
 Lat kutte hem of, I wol thee help hem carie;  
 They shul be shryned in an hogges toord!” (948-55)

화자의 양식을 섭취한 여러 순례자들 가운데 특히 여관주인이 화자가 제공한 음식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위에서 여관주인은 화자의 성적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육체적으로 모호한 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은 물론 그의 정신적 타락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여관주인이 언급하고 있는 화자의 신체 부위 더불어 여기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도덕적으로 왜곡된 화자의 도덕적 상태를 암시해주기에 충분하다. 결국 화자가 회중들에게 제공하는 양식, 즉 성인의 유물은 이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지 못한 채 “돼지의 똥”이며 찌꺼기에 불과할 뿐이다.

크루거(Steven Kruger)는 위의 인용문에 언급되고 있는 화자의 신체 하위 부분들은 대상에 대한 의미 해석을 하는데 있어 있는 그대로의 해석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세 명의 난봉꾼들 모습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131). 다시 말해서, 세 명의 난봉꾼이 죽음(Death)에 감추어진 다른 차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매함을 보이듯이, 면죄부 판매자 또한 자신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물론 자신이 범하고 있는 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먼저 면죄부 판매자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악의 근원은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가 하는 이야기의 일관된 주제어는 폭음과 폭식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타의 죄와 함께 “입과 관련한 죄”(sins of the mouth)들이 그의 프롤로그와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면죄부 판매자의 죄 역시 탐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입에서 비롯되는 죄인지도 모른다. 탐욕이 그로 하여금 하느님의 구원과 생명을 빌미로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가 범함 가장 큰 죄는 입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면죄부 판매자 자신도 수도승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는 이야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난봉꾼들의 죄들, 즉 “입에서 비롯되는 죄들” 가운데 하나인 거짓말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흔히 입에서 비롯되는 죄를 입에서 독사들이 기어나는 모습으로 형상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거짓말은 “시체의 입에서 나오는 파리나 독을 품고 있는 파충류” 따위에 비유되곤 한다(Craun 64). 더 나가 독을 품은 파충류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씨앗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 어미에 배를 찢고 독을 품은 자손들이 다시 나오게 된다고 크라운(Edwin Craun)은 말한다(17). 단순히 정신적 죽음만을 가져다주는 죄악을 넘어 거짓말은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죄악으로 당시 독자들에게 매우 무겁게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린치(Kathryn Lynch) 또한 「면죄부 판매자의 이야기」에는 화자와 관련하여 독사 이미지들(413; 421-22)을 비롯하여 크라운이 언급한 비슷한 이미지들이 화자의 말(534-36)에 주문처럼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98).

프롤로그에서 자신의 도덕적 상태는 물론 죄까지도 낱알이 고백한 면죄부 판매자가 다시 이야기 속에서 폭음과 폭식, 이로 인하여 비롯되는 이른바 “입에서 비롯되는 죄들”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발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서 살펴보았던 수도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두 화자 모두 당시 교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들이며,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또한 기본적으로 설교의 내용과 형식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이들 성직자들의 이야기에는 음식 및 먹고 마시는 행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 대부분이 밝고 긍정적인 것이기 보다는 폭음과 폭식으로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되는 인물들에 대한 것들이다. 이들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이야기의 내용과 분위기에서 대조를 보이는 것이 바로 시골사제와 그가 말하는 이야기이다. 시골사제는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가 하는 이야기 또한 수

도승이나 면죄부 판매자가 하는 이야기들처럼 설교의 형식과 내용을 따르고 있다. 초서는 설교자의 성품은 물론 이야기의 내용과 분위기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이야기를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틀 안에 넣고 있다. 무엇보다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이미지들이나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하여 비롯되는 비극적 종말을 소재로 수도승과 면죄부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양식(교훈)과 시골사제의 이야기의 양식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효과적일까? 그리고 “찌꺼기와 배설물”로 뒤섞여 있는 수도승과 면죄부 판매자의 양식에서 독자가 얻을 수 있는 정신적 자양물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며, 초서는 당시 독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음식 관련한 내용과 이미지를 통하여 성직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입하기 보다는 보다 효과적이며 쉽게 독자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

대구대학교

주제어: 『캔터베리 이야기』, 음식, 먹고 마시기, 중세교회, 성직자

## 참고문헌

- 이동춘. 「축제의 제전(祭典)으로서 『캔터베리 이야기』: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중세르네상스 영문학』, vol. 22, 2014, pp. 21-47.
- Adams, Carol J. *The Sexual Politics of Meat: A Feminist-Vegetarian Critical Theory*. Continuum, 1993.
- Arano, Luisa Cogliati. *The Medieval Health Handbook*. Braziller, 1976.
- Biebel, Elizabeth. “Pilgrims to Table: Food Consumption in Chaucer’s *Canterbury Tales*.” *Food and Eating in Medieval Europe*, edited by Martha Carlin, Hambledon, 1998, pp. 15-26.
- Bressie, Ramona. “A Governour Wily and Wys.” *Modern Language Notes*, vol. 54, 1939, pp. 477-90.
- Capellanus, Andreas. *The Art of Courtly Love*. Translated by John Jay Parry, Ungar, 1959.
- Chaucer, Geoffrey.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Edited by Larry D. Benson et al,

- Houghton Mifflin, 1987.
- Craun, Edwin D. *Lies, Slander, and Obscenity in Medieval English Literature: Pastoral Rhetoric and the Deviant Speaker*. Cambridge UP, 1997.
- Delasant, Rodney. "'Namooore of this': Chaucer's Priest and Monk." *Tennessee Studies in Literature*, vol. 13, 1968, pp. 117-32.
- Engelhardt, George H. "The Ecclesiastical Pilgrims of the *Canterbury Tales*: A Study in Ethology." *Medieval Studies*, vol. 37, 1975, pp. 287-315.
- Everest, Carol A. "Pears and Pregnancy in Chaucer's 'Merchant's Tale.'" *Food in the Middle Ages: A Book of Essays*. Edited by Melitta Adamson, Garland, 1995, pp. 161-75.
- Gallacher, Patrick. "Food, Laxatives, and Cartharsis in Chaucer's Nun's Priest's Tale." *Speculum*, vol. 51, 1976, pp. 49-68.
- Gillmeister, Heiner. "Chaucer's Monch and die 'Reule of Seint Maure or of Seint Beneit.'" *Neuphilologische Mitteilungen*, vol. 69, 1968, pp. 222-32.
- Gower, John. *The Major Latin Works of John Gower*. Translated by Eric Stockton, U of Washington P, 1962.
- Grennen, Joseph E. "Chaucerian Portraiture: Medicine and the Monk." *Neuphilologische Mitteilungen*, vol. 69, 1968, pp. 569-74.
- Hemingway, Samuel B. "Chaucer's Monk and the Nun's Priest." *MLA*, vol. 31, 1916, pp. 479-83.
- Henisch, Bridget Anne. *Fast and Feast: Food in Medieval Society*. Pennsylvania State UP, 1978.
- Jonassen, Frederick B. "The Inn, the Cathedral, and the Pilgrimage of *The Canterbury Tales*." *Rebels and Rivals: The Contestive Spirit in The Canterbury Tales*, edited by Susana Fein et al, Western Michigan UP, pp. 1-35.
- Kaske, R. E. "The Summoner's Garleek, Oynons, and Eek Lekes." *Modern Language Notes*, vol. 74, 1959, pp. 481-84.
- Keenan, Hugh T. "The General Prologue to the *Canterbury Tales*, lines 345-46: The Franklin's Feast and Eucharistic Shadows." *Neuphilologische Mitteilungen*, vol. 79, 1978, pp. 36-40.
- Kruger, Steven F. "Claiming the Pardoner: Toward a Gay Reading of Chaucer's 'Pardoner's Tale.'" *Exemplaria*, vol. 6, 1994, pp. 121-25.
- Lumiansky, R. M. *Of Sundry Folk*. Texas State UP, 1955.
- Lynch, Kathryn. "The Pardoner's Digestion: Eating Images in *The Canterbury Tales*." *Speaking Images: Essays in Honor of V. A. Kolve*, edited by R. F. Yeager and Charlotte Morse, Pegasus, 2001.
- Mann, Jill. *Chaucer and Medieval Estates Satire*. Cambridge UP, 1973, pp. 153-56.
- McCann, Justin, editor and translator. *The Rule of Saint Benedict*. Newman, 1952.
- Miller, Robert P. *Chaucer: Sources and Backgrounds*. Oxford UP, 1977.
- . "It Snewed in his House." *English Language Notes*, vol. 23, 1985, pp. 14-6.

- Myers, A. R. *England in the Late Middle Ages*. Penguin, 1961.
- Nichols, Robert E., Jr. "The Pardoner's Ale and Cake." *PMLA*, vol. 82, 1967, pp. 498-504.
- Norsworthy, Scott. "Hard Lords and Bad Food-Service in the Monk's Tale." *JEGP*, vol. 100, 2001, pp. 313-32.
- Pierre, Bersuire. *Reductorium Morale*: Instituut voor Laat Latijn, 1966.
- Rowland, Beryl. *Birds With Human Souls*. U of Tennessee P, 1978.
- Sledd, James. "By Seint Ronyan." *Medieval Studies*, vol. 33, 1951. pp. 226-33.
- Stevens, Martins and Falvey, Kathleen. "Substance, Accident, And Transformations: A Reading of *The Pardoner's Tale*." *Chaucer Review*, vol. 17, 1982, pp. 142-58.
- Waszink, J. H. Ed. *Timaeus a Calcidio Translatas Commentarioque Instructus*. Plato Latinus 4. Warburg Institute and E. J. Brill: 1962.
- Watson, Charles S. "The Relationship of *The Monk's Tale* and *The Nun's Priest's Tale*." *Studies in Short Fiction*, vol. 1, 1964, pp. 277-88.
- White, Robert B., Jr. in "Chaucer's Daun Piers and the Rule of St. Benedict: The Failure of an Ideal." *JEGP*, vol. 70, 1971, pp. 13-30.
- Wood, Chauncey. "The Sources of Chaucer's Summoner's 'Garleek, Oynons, and Eek Lekes.'" *Chaucer Review*, vol. 5, 1971, pp. 240-44.
- Yeager, R. F. "Aspects of Gluttony in Chaucer and Gower." *Studies in Philology*, vol. 81, 1984, pp. 42-55.
- Zatta, Jane D. "Chaucer's Monk: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Chaucer Review*, vol. 29, 1994, pp. III-33.



Abstract

## Food and Eating As Religious Metaphor: Focusing on Chaucer's Religious Tales

Dongchoon Lee

Food and its consumption play a significant role in Chaucer's *Canterbury Tales* that extends far beyond the concepts of sustenance and survival. Given the significant value of food because of the increasing scarcity that resulted from recurring famine in the late fourteenth century, Bailly's suggestion of providing 'a soper at oure aller cost' for the best storyteller is quite realistic. Moreover, it has been noted that Chaucer's food references are relevant to individual characters. Food and its consumption are used as an interpretive guideline for an individual's health, personality, or morality. Considering Chaucer's characters are on a religious pilgrimage, the concept of food and consumption readily lends itself to that of spiritual nourishment.

If food consumption that occurs in Chaucer's work is examined as a whole, a contrasting pattern emerges: a pattern of pure, balanced or even vegetarian ingestion surrounding the spiritually good individuals such as Griselda and the good widow of the *Nun's Priest's Tale* and the opposing pattern made by the heavy meat-eaters, such as the Summoner's friar and the Monk. The Monk's specific preference for swan and his appetite elaborated in his portrait reveals the physicality of gluttony which is a familiar object of anticlerical ridicule. The stories presented by the Monk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disastrous consequences of unlawful eating and drinking. Without grasping the *significatio* of his tales, the Monk ultimately tells the story of his own fall, which most likely results from the sin of gluttony.

*The Pardoner's Tale* involves 'eating imagery' on multiple levels. In particular, the connection of unlawful eating and drinking with spiritual death is more visually revealed in his tale. The Pardoner's preaching focuses more closely on the vice of gluttony. Gluttony is the initial sin named, described, and proscribed in his tale, which the rioters in a tavern "eten and drynken over hir myght." His prologue and tale expose gluttony as a 'sin of the mouth' that results from the immoderate intake of food and drink. And it ultimately leads to a 'sin of the mouth,' such as licentiousness, swearing, and blaspheming. However, the Pardoner fails to understand that his own sin is not the avarice against which he specifically preaches. Though avarice indeed motivates him, more fundamentally he commits a sin of the mouth.

### Key Words

*The Canterbury Tales*, food, eating, medieval church, clergymen

K C I

Submitted 25 Jan. 2018  
Review Completed 15 Apr. 2018  
Accepted 15 Apr. 2018